

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하여

머리말

-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여 공표함.

1.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관련

-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예측 불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며, CUES에서도 회피해야 할 동작의 하나로 규정됨.
- 한국측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측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방위성에 '사실 왜곡' 중단과 '저공위협비행'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였음.
- 조사된 레이더파 등을 해석한 결과, 한국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레이더파를 일정 시간 계속하여 몇 차례 조사받은 것을 확인하였음.
- 이미 방위성이 공표한 동영상 내용에서도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실은 명백함. 이번에 새롭게 탐지 시 음성을 공표함.
- 일한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여 공동으로 검증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.
- 실무자협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한국국방부가 사전 합의에 어긋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방위성 제안을 '무례'라고 비난하였음.
- 한국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음.

2. (1) P-1 비행 관련

- P-1은 충분한 고도(약 150m) 와 거리(약 500m)를 확보하였음. 한국 구축함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비행도 하지 않았음. 또한, 한국 구축함이 구조활동에 종사한 것을 그 호출도 없었기에 P-1은 인지하지 못 하였음.
- 지금까지 해상자위대에서는 경계감시 및 정보수집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군함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이번과 비슷한 비행을 하고 사진을 촬영함.
- 한국측의 '저공위협비행'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희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.

2. (2) 통신상황 관련

- P-1은 3가지 주파수를 사용하여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음.
- 한국측은 현장의 통신환경이 나빴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일 날씨 및 P-1 통신장치 상황에서 통신환경이 좋았던 것은 명백함.
- 한국측이 공표한 동영상에서도 P-1 호출 내용을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음.
-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측에 촉구함.

3. 향후 대응 관련

- 이번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함. 재발방지를 요구함.
-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함.
- 계속해서 일한, 일미한 방위협력 계속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나가겠음.